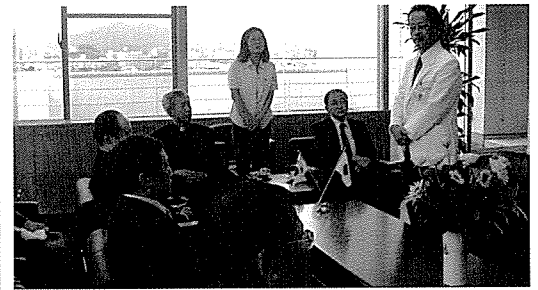


제18차

한·일운영위원회 日 후쿠오카에서 개최

생명윤리문제 공동대처 합의 등.....



한국 가톨릭의료협회와 일본가톨릭(의료)시설협회(성마리아병원 외) 간 매년 양국을 오가며 정기 개최되는 한·일운영위원회 2005년 회의가 지난 7월 7~9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렸다.

한국측 대표는 최영식 신부(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를 포함한 채영희 신부, 남옥윤 수녀(이상 부회장), 우영균 사무총장, 남궁성은/이기현 신부(이상 이사) 등 9명의 한국측 대표가 참석했고, 일본측은 성마리아병원 이데 요시오 이사장 외 관계 임원 9명이 참석해 양측 간의 현안 및 의제를 협의했다.


주요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도 한·일 간 교류사업(연수, 파견, 교육 등)을 포함한 정례사업의 협의, 인간생명 존중의 가톨릭이념 실천을 위한 의료 활동에 양국 간의 공동노력 다짐, 한국의 인간배아복제 연구허용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등과 특히 일본측이 CMC가 주체가 된 성체출기세포 연구사업 참여와 사업의 Fundraising의 동참에 큰 관심을 보여, 한국측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연구 프로젝트 내역을 전달하면 일본측이 사업 참여에 관한 공식적인 의사를 제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한편 이번 제18차 운영위원회는 일본의 가톨릭시설협회 전국대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추어 회의를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일본 가톨릭시설협회는 전국의 가톨릭병원, 가톨릭요양원, 가톨릭복지시설이 회원으로 연맹을 이루고 있는 협회로서 회원들은 매년 전국대회(기간 : 2박 3일)를 열어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전국대회는 후쿠오카에서 성마리아병원 주체로 열리게 되어 우리측 대표는 한·일운영위원회 참석과 함께 일본측 가톨릭시설협회 행사에 초빙 받게 되었다.

일본 가톨릭시설협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생명윤리운동에 대한 공동대처와 노력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미나 행사에서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 최영식 신부께서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출범과 향후 과제”라는 내용으로 특강을 실시해 일본가톨릭의료협회 출범을 앞둔 참석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번 행사시기는 성마리아병원 고 이데 미찌오 전임 이사장의 1주기가 되는 시기로 최영식 신부 및 일본 측 마츠나가 히사지로 주교를 비롯한 양국의 사제들이 공동으로 연미사를 집전하여 고인을 위령하는 행사를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성마리아병원을 방문 견학하고 상호 병원의 시스템과 운영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2006년 운영위원회는 한국측의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5월경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쓰나미 피해 2천만 원 성금 지원 서남아시아 피해지역 난민 구호활동

- 4개월간 인도네시아 사랑의 인술 펼쳐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쓰나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의 성금을 한국 까리따스를 통해 지원했으며 가톨릭 해외의료지원단(단장 : 김종호 신부)은 지난 3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4개월간 인도네시아 메단대

교구 반다아체(Banda Ache) 지역에서 쓰나미 피해로 고통 받는 난민들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 김용태 신부)와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 최영식 신부)이 함께한 이번 해외의료활동은 의료진 2~3명으로 구성된 팀이 파견되어 총 6차례에 걸쳐 보름간 머물면서 모두 12,877명의 주민을 진료했다.

의료팀은 안과질환, 두통, 기관지염, 천식, 순환계질환, 위장질환, 설사, 피부질환, 고열, 황달, 근육관절통, 쓰나미 증후군 등을 진료하였으며, 진통제, 항생제, 소화제, 진정제, 외과 구급약품 등 의약품과 의료기구들도 함께 전달하여 인도네시아 재해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